



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

<보도 주요내용>

9.24.(화) 이데일리 「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...이달말까지 인상 가능성 조율」, 서울경제 「빛122조인데 전기료 또 동결…」, 머니투데이 「전기요금 인상 “정상화” vs “50% 올렸다”」 등 다수의 언론에서 전기요금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남혁 (044-203-39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남 (044-203-3904)